

# EUNSEOK CHURCH MATHETES

무관심

신윤식

누구에게는  
간절함인데  
누구에게는  
관심 밖의 일

누구에게는  
없으면 안되는데  
누구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관심과 함께  
어둠 속을 질주하며  
산산이 부서질  
환상인 줄도 모른 채  
부질없이  
세상과 동거 하는  
그들을 본다.

제24권

40  
2016.10.2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 하나님의 세계

겔 39:25-29

성경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감동보다는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현실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간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평안한 삶이든 힘든 삶이든, 부요하든 가난하든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며 세상에 흔들리기 쉬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세워 놓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지금의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동일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삶에 더 크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함께 치우쳐 돈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삶에 매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건강이 없으면 삶은 분명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며 고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 돈과 건강

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이러한 삶을 누가 비판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돈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의 조건을 돈과 건강에 두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우리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만약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신이 하나님이란 신을 모신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고통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삶의 평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며 이러한 종교의 세계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음을 깨

닫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 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쨌든 돌아오게 하셨으니 된 것 아니냐’며 포로 되어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삶의 입장에서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을 겪었던 것을 ‘어쨌든 해방되었으니까 된 것 아니냐’라는 말로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식민지 시대를 직접 겪지 않은 세대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통의 그 세월을 겪은 세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겪었던 세월이 삶에 가시처럼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때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 개인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집에 불이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무너지고 다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 버립니다.

그러면 28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포로 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되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삼은 일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킨 계사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자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우연이 없고 사람의 권력과 뜻에 따라 피어진 일이 아니며 오직 뜻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되어진 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포로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자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앞드러지게 하였으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된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곡의 힘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곡과 그 무리들에게는 자기들의 힘에 의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세상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들은 모든 일을 인간의 힘에 의해 흘러가는 역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자에게는 역사가 단순히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손길에 의해 장악되고 다스려지는 세상임을 믿는다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지는 역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된 것을 보는 여러 민족들은 그 모든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에 의한 역사로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곡과 그 무리들의 무기를 일곱 해 동안 불태우고 시신을 일곱 달 동안 매장하게 하심으로 곡의 힘에 의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것이 곡과 그 무리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한 일을 겪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이 없는 민족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곡과 그 무리들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것은 그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모든 일을 인간의 힘에 의해 되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으

로 고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개입을 믿는 신자로서 ‘세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진다’가 믿음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고방식에 치우쳐 이방인과 동일하게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이방인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자기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방인이 신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사도바울과 얘기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은 이웃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이웃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편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방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에서



초라함을 보면서 이방인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우상을 끌어들이며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여러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하였고 후에는 다시 그들을 모아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변화로 인해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변화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로잡혀 갔을 때의 이스라엘 그대로라면 초점은 고국 땅에 돌아올 자격이 없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종교인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의 집합소와 같은 수준이라면 자신의 신앙이 우월하다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모습만 가득할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아람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자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갔을 때나 돌아올 때나 동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라니”** 라고 말하고 29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평안히 거하게 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쏟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로 가득한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인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죄를 안다는 것이고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히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자신을 사랑에서 구출하여 돌아오게 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신자 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 됨을 인간의 종교성을 기준으로 행위로 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 또한 믿음의 의미를 자신의 행위 속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여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되어야 하는가에서 믿음의 의미,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쏟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더러움과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24절).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차단된 어둠의 세계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차단되어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어둠의 세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 31:18절에서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러움과 범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피 흘림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누리게 된 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늘 잊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사로잡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악행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원망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봄으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 믿음과 승리

요일 5:4-6

믿음 81강 9. 11일 설교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앙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의 번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며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는 실사 죽음의 세상이라 해도 세상에서의 번성을 꿈꾸는 욕망이 성경을 왜곡하게 하고 결국 잘못된 신앙으

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승리주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불신자보다 잘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이 진리가 되어 교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주의에 의해서 어떤 목사는 ‘삼박자 축복’ 이라는 말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소위 긍정적인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서 승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홀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승리를 추구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의 하나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5절)일 것입니다.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번성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승리가 그런 것이라면 믿는 자는 모두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해야 합니다. 가난하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도 신앙이 없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실패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십일조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잃게 한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런 말을 한다면 그들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실패하게 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 6:9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에서 힘 있는 강한 자 되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서 강한 자가 되어 승리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 또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생존을 위해서는 강한 자 되는 것이 좋

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승리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 저주, 심판에 대한 말을 듣는 것보다는 성공, 승리라는 희망적이며 힘을 주는 말이 더 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승리라는 말이 아무리 듣기 좋다 할지라도 막연한 기대, 또는 헛되고 허망한 생각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이고, 그것을 종교꾼들이 적절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신앙은 신자로 하여금 분명 세상을 이기게 하고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강한 힘을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의미가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됩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세상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는 유혹에 불들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에 속한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좋은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승리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기독교인조차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되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힘과는 무관한 생명을 가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듣기에는 은혜롭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돈이 힘이고 돈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누가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현실은 믿음이 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믿음을 이기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강조하는 교회조차도 돈에 매이고 돈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눈에 드러난 현실을 본다면 믿음은 이상이고 돈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존은 믿음 없이도 가능하지만 돈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존은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생존은 종결되고 생명의 문제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생존이 종결되는 순간 돈과 권력 등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종결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생존의 종결 그 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1,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세상을 이긴 자는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생존이 유지되는 순간이 아니라 종결된 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생존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건, 다시 말해서 세계 제일의 갑부로 힘 있는 권력자로 생존하고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종결되면서 더 좋은 것은 아들이 있는 것이고 구원에 속한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생존에 힘 되는 것을 믿음으로 얻고자 한다면 그는 이미 패배자의 길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6-8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하여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에 갇혀 있어야 할 우리의 운명에 함께 하였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생명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운명에 들어오셨다는 뜻이고, 피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산다 해도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믿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종교였을 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아들을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현실에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전 15: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 유다의 축복

창 49:8-12

118강 2016. 9. 28일 설교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씁니다. 즉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축복했다고 말하는 것을 저주 속에 축복이 감춰져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주가 당연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됨으로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주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은 저주에 속한 자가 저주와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며 구원에 속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알지 못한다면 축복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모르고서는 부활의 영광과 복됨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축복만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구출되는 구원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진 채 생존에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의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유다가 나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더 잘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자체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축복을 단순히 다른 형제보다 잘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거지 나사로는 축복과 상관없이 됩니다. 오히려 거지로 고통 받으며 산 인생으로 인해 저주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만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연보하여 예수님께 칭찬 받은 가난한 과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부자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면 축복을 받고 잘되는 것이 옳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도, 축복도 세상에서 잘

되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뜻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셉에게 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특정 인간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인간에게 고정되지 않았다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유다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부자가 되었거나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면 복은 예수로 말미암을 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브루넬, 시몬, 레위가 그들의 행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비록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손에 쥐었다 해도 본질은 저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희망이 없는 어둠에서 희망이 있는 빛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주에서 복으로 옮긴바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유다의 축복에 담긴 내용입니다. 유다가 저주에 있는 자를 건져서 빛의 세계에 있게 할 복의 근원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차자의 자행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브라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고 말합니다.

규는 왕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왕이 유다 가문에 나타남으로써 유다가 영원히 왕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누리게 될 복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회막을 세운 곳입니다(수 18:1). 회막은 장막을 말하는 데 장막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막에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법궤 두쪽에 뿌림으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한 죄를 희생의 피로 용서하시는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말 합니다. 모든 저주를 씻어 버릴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람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장자인 브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아람이 사랑했던 베나민에게 유다의 축복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람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유다에게서 나

타난 속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 43: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라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고 말합니다.

유다가 아람에게 베나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만약 베나민을 애굽에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말합니다. 베나민을 위해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희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 44:33절에서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이던 요셉에게 자신을 종으로 삼고 대신 베나민을 돌려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베나민을 잃었을 때의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에게서 나타나는 속성은 희생입니다.

유다는 아바 다말에게서 희생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말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와 동침한 것을 알게 된 유다가 자신으로 인해 희생하게 된 다말을 보면서 다말의 희생이 자신의 가문을 살렸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역시 브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가문일 뿐입니다. 요셉을 버리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저주로 끝나야 할 가문이 저주에서 건지실 영원한 왕이 오심으로 축복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이 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거룩하신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그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 교회소식

1. 신자가 생존의 문제에만 매이게 되면 무엇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제직회 있습니다.
3. 최두임 권사 가정이 복귀 사수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4. 신윤식 목사가 98회 재건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비비추

##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 일 오 전	11:00
주 일 오 후	2:30
수 요 일	7:30
주 일 학 교	1:00

###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독상기도 ..... 다 할 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0장  
 교 독 문 ..... 47(시105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84장  
 성경봉독 ..... 겔 39:25-29  
**● 하나님의 세계(96강) ●**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83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1장  
 축 도 .....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김종건 집사

###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68장  
 기 도 ..... 이인혁 집사  
 찬 송 ..... 421장  
 성경봉독 ..... 뱀전 5:6-11  
**● 믿음과 염려(믿음84강) ●**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45장  
 주기도문 .....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김영숙 집사

###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강해 119강